

## 방어적 현실주의

### 1. 방어적 현실주의의 개요

- 1) Robert Jervis의 "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" (1978년), Stephen Van Evera의 『Causes of War : Structures, Power and the Roots of International Conflict』(1999년)
- 2) 방어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들은 권력 추구보다 방어적이며 현상유지적인 안보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여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칭함
- 3) 무정부적 국제체제를 기본 가정으로 함으로써 신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, 그러한 무정부성 하의 극성이 국가행위를 모두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
- 4)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가 안보를 추구한다는 월츠의 주장을 어어받고 있으나, 안보딜레마와 군사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특징
- 5) 공격·방어 균형과 구분 가능성에 의한 안보딜레마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며,
- 6)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현상타파적 국가는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
  - 공격적 군사전략(선제공격 등)과 군사무기의 위험성을 제기

### 2. 월츠의 이론에 대한 수정 제안

- 1) 국가행동 결정 변수로서 군사력 : 단순히 총량적 수준(aggregate level)에서 상대적 힘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 군사적 힘(military power)
  - 신현실주의는 국가행동 세밀한 부분 정확히 예측못하는 결정력의 부족(indeterminacy)
- 2) 군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: 군사기술의 차이에 따라 공격우위(offense advantage), 방어우위(defense advantage)가 결정되며, 결국 군사기술이 국가행동과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영향
  - 월츠는 군사기술 차이가 국가의 전체적인 힘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만, 군사기술 차이로 국가행동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음
- 3) 군사기술은 국제체제적 요인(월츠의 주장)이 아니라 국내체제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
  - 군사기술은 국가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또는 국제정치 연결하는 매개변수
  -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기관총, 철조망, 대포 같은 것은 공격보다 방어에 유리한 방어우위의 기술적 상황이었고, 방어를 군사력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나아가 방어작전을 지향
  -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,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럽 강대국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귀족세력이 약화되었으며, 이들의 최후보루인 군부는 자신의 영향력 유지 위해 애국심에 기초한 돌격전술과 공격정신을 강조하는 공격우위의 군사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영향받음

<참고> 방어적 현실주의의 부수적 가정(auxiliary assumption) 4가지

- 안보딜레마(security dilemma)의 불가피성 : 무정부상태 하 개별국가의 방어적인 ‘안보’ 의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결과
  - 구조적 수정요인(structural modifiers)의 존재 : 공격·방어 균형 등
  - 인식적 변수(perceptual variables)의 영향 :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한 물질적 능력보다 지도자의 인식이 영향
  - 체제적 제약 하 국내정치(domestic politics)의 영향력 : 국내정치가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
- cf) 방어적 현실주의, 신고전적 현실주의 등이 현실주의 가정을 일부 벗어나 현실주의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서 ‘최소형 현실주의(minimal realism)’라고 비판하기도 함

3. 공격·방어 이론과 안보딜레마

1) Robert Jervis의 안보딜레마

- 안보딜레마 : 자신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가 주변국의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의미(방어적 목적에서 행한 행동이 공격적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)
- 안보딜레마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서 완전한 제거 어렵더라도 완화는 가능
- 안보딜레마에 미치는 결정요인
  - i) 공격·방어 균형 : 즉, 공격우위 또는 방어우위 상황으로 나뉘며, 해당 국가의 전략적 취약성을 결정
  - ii) 공격·방어 구분 가능성 (차별화) : 공격·방어 구분 가능 또는 불가능

참고 : R. Jervis가 제시한 안보딜레마의 4가지 상황		
구분	공격 우위	방어 우위
공격-방어 구분 불가능	<b>이중 위험 상황 : 안보딜레마</b> <b>정도가 가장 높음</b>	안보딜레마 상황이지만 안보에 필요한 조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위험 상황
공격-방어 구분 가능	안보딜레마 상황은 아니지만 공격이 가능함. 현상유지 국가는 침략국과 다른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위험 상황	<b>이중 안정 상황 : 안보딜레마</b> <b>정도가 가장 낮음</b>

출처 : Robert Jervis, "Cooperation under Security Dilemma," (1978)

2) 안보딜레마와 군사기술

- 어떠한 군사기술이 존재하느냐 즉, 공격우위냐 방어우위의 군사기술 여부, 이와 더불어 공격·방어 구분 가능성 여부가 안보딜레마에 영향
- 방어우위 군사기술 + 공격방어 구분 가능 군사기술일 경우 안보딜레마 상황

은 개선

- 예로서, 공격용 무기 감축과 사찰이 이루어지면 안보딜레마 완화

### 3) 안보딜레마 이론에 대한 비판 입장 존재

- 안보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: 미어샤이머는 각국은 생존 위해 힘의 극대화 즉 무한경쟁 하기 때문이라 하였고, 스웰러는 안보경쟁이 현상유지국가들 사이의 불확실성에 의한 비극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의 국가는 팽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 무의미
- 공격·방어 균형이 공격우위인지 방어우위인지 측정이 불가능하며,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무기와 전술을 만듦(독립변수가 될 수 없음)

### 4) 안보딜레마에 대한 지지 입장 존재

- 국가들이 현상유지국인지 현상타파국인지 구분하는 데에 불확실성 존재하며,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더라도 상대방은 잘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중
  - > 따라서 현상유지국이 군사력 증강하더라도 상대방의 안전을 저해하게 되는 안보딜레마 발생
- 모든 무기는 효율성에 차이는 있지만 공격이나 방어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, 무기와 전술은 어디에 사용될지 사전에 정하여진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, 이로써 국가의 행동에 영향력 가능(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)

## 4. 공격우위의 위험성

### 1) 국가는 방어우위 군사기술 보다 공격우위 군사기술 하에서 더욱 공격적

-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군사력 증강은 자신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며, 자신의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로 주변 국가의 안보가 저해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이 더 악화

### 2) 방어우위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공격우위 다극체제가 가장 불안정

- 공격우위 하 다극체제는 국제체제의 위험성과 강대국의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, 방어우위 다극체제의 경우 그러할 위험성이 완화
- 같은 양극체제 하에서도 공격우위 양극체제가 방어우위 양극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성

cf) 공격우위 상황에서는 동맹 패거리짓기 양상, 방어우위 상황에서는 책임전가 양상이 표출 : T. J. Christensen, J. Snyder

### 3) 공격우위 군사기술 하 더욱 공격적으로 되고 국제체제 안정성 저해하는 4가지의 경로

#### i) 결과에 대한 잘못된 낙관주의(false optimism)

- 공격우위 하 및 전쟁승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, 전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봄
- 전쟁에 대한 낙관론이 외교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 보다 전쟁 통한 해

소를 유인해 전쟁빈도 증가

- 더 많은 군사력 사용은 선택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국제체제의 안정성 훼손

**ii) 선제공격하려는 전술적 성급함(jumping the gun)**

-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에 치명적 타격의 이점이 있다고 보아, 국가 간 대화나 협상보다 전술적, 군사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 시도하며 전쟁 선택
- 상호 간에 선제공격에 대한 공포가 존재할 때 더욱 선제공격의 이점이 부각되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 높임

**iii) 세력균형 변화(power shift)에 적응 어려움**

- 쇠퇴하는 국가는 부상하는 국가에 대한 예방전쟁의 '기회의 창'이 있으나, 이 기회를 놓칠 경우의 '취약성의 창'이 열림
- 공격우위 상황 하에서는 두 개의 창 모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국제체제의 불안정성 강화

**iv) 자신이 정복한 주변 국가의 자원을 계속 축적(cumulative resources)하여 추가팽창**

- 단, 대외팽창이 항상 해당국가의 가용 자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(정복한 국가에서 행정력, 군사력에 의한 추가비용 지출 필요)

**4) 공격우위 상황 하 안보딜레마 악화로 인한 결과 11가지**

- i) 더욱 기회주의적 팽창
- ii) 자신의 생존 위해 팽창
- iii) 취약성 증가로 다른 국가 생존 노력에도 격렬히 저항
- iv) 선제공격의 이점 증가
- v) 기회의 창과 취약성의 창이 커져 예방전쟁의 위험 또한 증가
- vi) 강압적 행동, 타협하지 않고 기정사실을 다른 국가에 강요
- vii) 협상에 양보 않고 외교 통해 갈등 해소 못함
- viii) 외교, 국방 관련 비밀증가로 오인과 오판 가능성 증가
- ix) 타국 실수 이용 인센티브 증가로 실수 시 상당한 피해
- x) 군비경쟁 더욱 격화 및 통제 곤란
- xi) 앞의 열가지 효과가 상승작용 통해 더욱 강화

**5. 국제정치의 위기와 제1차 세계대전**

- 1) 제1차 세계대전 경우 공격우위 신념과 이에 기초한 군사력 구조가 발발에 영향
  - o 기본적으로 다극체제가 양극체제에 비해 불안정성이 높다고 하더라도, 당시에 방어 보다 공격이 더 유리하다는 공격우위가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더욱 해치게 되면서 전쟁 발발 : 독일의 경우 공격우위의 전격전 추구
  - o 공격우위 인식 시 동맹국의 적극적 지지 : 동맹 패거리짓지(chain-ganging)
    -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강대국들은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맹의무를